

# 원희룡 장관,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간담회

## -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에 주거 상담 등 현장 역할 중요성 강조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1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  - 지난해 9월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의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이후, 같은 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.
-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‘춡춡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’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,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다”고 밝히며,
  - “지난 간담회 때 주거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확대, 제도 개선 등 주거상향 사업도 공백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”며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 중인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- 아울러 “지하층에 거주하며 수해를 걱정하는 분들, 쪽방·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다”면서,
  - “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주택 공급, 금융 지원,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분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”도 당부하였다
-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48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정책 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2023. 5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